

역사적 배경과 문맥적 접근을 바탕으로 스가랴 1:11하반 새롭게 번역하기

방기민*

1. 문제 제기

잇도와 베레가의 후손¹⁾ 예언자 스가랴는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에서 돌

* Lutheran School of Theology at Chicago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강남대학교 글로벌문화학부 기독교학전공 강사 및 장로회신학대학교와 한일장신대학교 구약학 객원교수. kmbang82@gmail.com. 이 논문은 장로회신학대학교 성서학연구원에서 주최한 제117회 성서학연구원 심포지엄(2023년 12월 4일)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발표 후 귀한 조언을 해주신 하경택, 이은우, 한동희 박사님과 논문 심사과정 중에 귀한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도 감사드린다.

1) 기본적으로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בְּנֵי**는 『개역개정』에서 아들로 보통 번역됐고, 맥락에 따라 손자, x대손 등의 표현으로 번역되었다. 나름대로 창의적인 방식이지만, 본 연구자는 전통적 방식을 재고(再考)하며 ‘후손’ 등의 대안적 번역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스 7:1-5까지 나타나는 에스라의 계보에서 『개역한글』과 『개역개정』 번역자들은 **בְּנֵי**를 기본 의미인 아들로 이해하고 한국적인 가족관계 이해를 바탕으로 아들, 손자, 증손, 현손, 오대손, 육대손 등으로 이어지며 최종적으로는 대제사장 아론의 십육대 손으로 에스라를 묘사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 출애굽 연대를 가장 늦은 시기로 추정하더라도 아론이 살았던 기원전 13세기와 에스라가 살았던 기원전 5세기 사이에는 열여섯 세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약 800년의 차이가 있다. **בְּנֵי**를 일차적인 의미인 아들로만 번역하기보다는 더욱 넓은 의미인 후손으로 번역하며, 중요한 조상들만을 언급했다고 이해하면 성경 해석상 여러 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스 1:1에서는 스가랴를 잇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로 묘사(『개역개정』, TEV, CEV 등)하는 데 비해, 스 5:1과 6:14에서는 **בְּנֵי עֵיטוֹ**, 즉 잇도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나타나며 베레가는 스가랴의 족보에서 빠진다. 『개역한글』과 『개역개정』에서는 스 1:1을 참고하여 잇도의 손자로 바꾸어 번역하지만, 이미 **בְּנֵי**이나 **בָּר**를 일차적인 의미인 아들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맥락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번역하고 있는 셈이다.

셋째, 더 넓은 의미인 ‘후손’으로 번역함으로 위의 두 가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뿐

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언 활동하던 예언자였다. 비평적 입장을 따르는 학자들에게 제1스가랴라고 불리기도 하는 스가랴 1-8장은 구체적인 연대를 언급하기 때문에 기원전 520년-518년 사이의 페르시아 속주 예후드(Province of Yehud)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의 말을 기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스가랴 1:11하반(כָּל־הָאָרֶץ וְכָל־הַשָּׂדֶה וְכָל־הַיָּם)의 『개역개정』 번역은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인데 이러한 번역은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다수의 성경 번역에서 번역하는 방식과 같다.

『개역개정』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새번역』	“우리가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였습니다. ”
『공동개정』	“세상을 돌아보니, 사람들이 평안히 살고 있었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KJV	We have walked to and fro through the earth, and, behold, <i>all the earth sitteth still, and is at rest.</i>
LB(1912)	Wir haben die Erde durchzogen, und siehe, <i>alle Länder sitzen still.</i>
CEV	“We have gone everywhere and have discovered that <i>the whole world is at peace.</i> ”
NIV(2011)	“We have gone throughout the earth and found <i>the whole world at rest and in peace.</i> ” ²⁾
NRSVue	“We have patrolled the earth, and <i>the whole earth remains at peace.</i> ” ²⁾
LSG	Nous avons parcouru la terre, et voici, <i>toute la terre est en repos et tranquille.</i>
Reina-Valera (1909)	Hemos recorrido la tierra, y he aquí, <i>toda la tierra está reposada y quieta.</i>

아니라, 후손(後孫)이라는 성 중립 번역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성까지 아우를 수 있는 대안적 용어가 될 수 있다. 1)이 남성 단수로 사용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남성 후손만을 지칭하는 것이겠지만, 남성 복수로 사용되었을 때는 히브리어 문법상 남성과 여성을 모두 아우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후손들이라는 성 중립적 번역어가 남성 중심의 자손들이라는 번역어보다 더 적절할 것이다.

물론 문맥상 명시적으로 아들을 뜻하는 경우까지 후손으로 번역할 필요는 없을 것이지만, ‘후손’, ‘후손들’이라는 번역어는 창세기 원 역사에 나타난 모호한 족보, 에스라의 족보, 잇도의 아들/손자 등의 사례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가능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 사 14:7에 관한 각주가 표시됨. NIV(2011)와 NRSV Updated Edition(2021)은 뒤에 설명할 될

하나님께서 땅을 두루 둘러보라고 말 탄 자들에게 명령하자 이들이 땅에 두루 다녀보았는데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당시의 역사적 배경(외적 증거)³⁾이라든지 스가랴 1:12 이하의 맥락(내적 증거)을 살펴볼 때 11하반절 번역의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는 묘사는 자연스럽지 않다.

첫째, 다수의 주석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것과 같이 1:12에 나타난 천사의 반문은 1:11의 보도가 실망스러운 것임을 암시한다.⁴⁾ 그런데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다는 번역이 실망스러움을 충분히 드러내는 보도인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

둘째, 곧 상세하게 다루겠지만 다리오왕 즉위 초반은 페르시아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 정세가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다. 다리오왕이 반란을 곧 진압하는 데 성공하기는 하지만, 과연 각 지역에서 반란과 전쟁이 계속되는 상태를 평안하고 조용하였다고 묘사하는 것이 적절한가? 일반적으로 통념에 비추어 볼 때 그렇지 않은 듯하다.

셋째, 현재 대부분의 번역이 히브리어 원어(מְשַׁבְּטִים וְשָׁמְטִים)의 일차적인 의미를 제대로 번역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일종의 의역인가? 아무래도 고대 명문의 용례 속 히브리어나 셈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린 직역보다는 칠십인역⁵⁾ 이후 이어져 내려온 번역 전통에 따른 의역이 아닌가 싶다.

터스(A. Wolters)의 견해(2008)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 3) 스가랴 및 동시대 예언자들의 글 번역에서 당시의 예후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 중 하나는 다음을 참고: D. J. Clark and H. A. Hatton, *A Handbook on Haggai, Zechariah, and Malachi*, UBS Handbook Serie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2002), 3-4. 최근의 스가랴 주석 중에도 서론에서 배경이 되는 시대를 상당한 분량으로 소개하는 사례가 있다. 예: M. J. Boda, *The Book of Zechariah*,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2016), 7-17. 본 논문에서도 역사적 사료 관찰을 긴 분량으로 시도하는데, 이 주제에 익숙한 독자들은 “2. 역사적 문제”를 건너뛰고 읽어도 무방하다.

- 4) Baldwin, Wolters, Seufert 등.

- 5) LXX: *πάσα ἡ γῆ κατοικεῖται καὶ ἡσυχάζει*. 칠십인역은 본문비평에서 중요한 증거자료 중 하나임에 분명하지만, 번역자가 히브리어를 깊이 이해하고 번역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칠십인역 가운데 가장 권위가 높은 오경의 경우, 김하연(H. Kim)은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던 유대인 5명이 함께 번역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히브리어를 잘 몰라서 범한 번역 실수를 상세히 논증한 바 있다. H. Kim, *Multiple Authorship of the Septuagint Pentateuch: The Original Translators of the Pentateuch* (Leiden: Brill, 2020); 예언서 부분은 오경보다 더 엄격한 문자적 직역을 추구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암 1:2의 번역자가 אַבְלִים의 여근을 אַבְל I과 אַבְל II 사이에서 혼동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예언서 번역자 역시 오경 번역자와 유사하게 히브리어 이해 수준이 높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참고: 알렉산드리아 아킬레스 피셔, 『구약성서 본문: 역사와 본문비평, 에른스트 뷔르트바인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입문서에 대한 새로운 개정』, 김정훈 외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0), 126-12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가랴 1:11을 바로 이해하고 새롭게 번역하는 작업을 통하여 스가랴서의 번역과 이해를 돕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역사적 맥락을 자세히 살피고, 히브리어 원전의 표현 및 고대/현대 번역본들의 문제점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노력을 정리하고, 새로운 번역과 본문의 이해를 제안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읽기가 스가랴 1-8장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밝힐 것이다.

2. 역사적 문제

2.1. 다리오왕 초기와 관련한 역사 개관

스가랴 1:11의 시간적 맥락은 다리오왕 제 2년 열한 번째 달 이십사일이다.⁶⁾ 이 시기는 예후드 지방이 속한 페르시아 역사에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 다리오왕(Darius I 혹은 Darius the Great)⁷⁾의 즉위 초기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제국의 초기 역사, 특히 고레스왕이 530년 전사하고 다리오왕이 갓 즉위한 시점까지의 국제 정세는 다소 혼란스러웠다고 평가할 수 있다.⁸⁾ 물론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물리치고 페르시아 제국을 이룬 고레스왕(혹은 키루스 2세, 재위 기원전 559년-530년)은 비교적 성공적인 왕이었다. 기원전 539년 그는 신바빌로니아의 수도 바벨론에 무혈입성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기원전 538년에 공포된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제국 내의 다양한 종교 및 종파들, 여러 민족의 지지를 받게 되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원전 530년에 제국의 동부 국경에서의 전투 중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왕위 교체가 예고 없이 일어났다. 고레스의

6) 이 시점은 학계의 마지막 예언이 선포된 다리오왕 제 2년 아홉 번째 달 이십사일에서 정확히 두 달이 지난 때이기도 하다. 이때 학개는 대단히 희망찬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7) 그는 대략 기원전 550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522년에 갑작스럽게 왕이 되었으며, 그가 죽은 기원전 486년까지 왕으로 페르시아(혹은 바사)를 다스렸다. 즉위 기간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다리오왕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최전성기를 이루어 냈던 왕이었다. 다리오왕의 통치 이념이나 공헌과 관련하여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김인화, “아케메네스조 다리우스 1세의 왕권 이념 형성 과정과 그 표상에 대한 분석”, 『서양고대사연구』 38 (2014), 37-72.

8)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를 연구한 쿡(J. M. Cook)은 이 시기를 제국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10년(the Critical Decade)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J. M. Cook, *The Persian Empire* (New York: Barnes & Noble, 1993), 43-44.

아.들 캄비세스가 왕위를 계승하고 군사적인 능력을 보여주며 이집트를 병합하는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캄비세스가 이집트에 머무르는 동안 벌였던 일들에 대한 평판은 좋지 않았다(Herodotos, *Histories Apodexis* III: 61).⁹⁾ 캄비세스 역시 모종의 이유로 기원전 522년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제국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캄비세스가 죽고 곧 다리오가 즉위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헤로도토스의 『역사』 3권 61-88장(Herodotos III: 61-88)과 다리오왕의 관점에서 서술된 비씨툰 명문(Bisitun Inscription 혹은 Behistun Inscription)¹⁰⁾이 각각 전해준다. 두 문헌은 캄비세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실과 이후 왕권을 향한 다리오와 바르디아/가우마타(혹은 가짜 스메르디스) 사이의 경쟁 관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리오가 승리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큰 그림은 비슷하지만, 적지 않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2.2. 헤로도토스가 기록하는 다리오의 즉위

헤로도토스의 『역사』(Herodotos III: 61-88)는 캄비세스가 이집트에 머무르는 중에 캄비세스가 재산관리인으로 남겨둔 두 마고스인 형제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보도한다. 앞서 캄비세스는 꿈속에서 고레스의 다른 아들인 스메르디스가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킨다는 내용을 봤기 때문에 예지몽이라 여겨 이집트 원정을 떠나기 전에 자기 부하 프렉사스페스를 시켜 스메르디스를 제거하도록 했다. 그러나 스메르디스 살해는 은밀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페르시아 사람은 고레스의 아들 스메르디스가 살아있다고 믿

9) Herodotus, *Herodotus: with an English Translation, Books III-IV*, vol. II, A. D. Godley, trans., Loeb Classical Libra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38), 76-115; 헤로도토스, 『역사』, 천병희 역 (도서출판 숲, 2009), 306-325. 헤로도토스의 보도문 요약은 헤로도토스 역사의 그리스어 원문과 영어 번역, 천병희의 한글 번역을 참고하고, 사람 이름 음역은 성경 본문과 여러 번역에서 관례로 사용되는 것을 따라 다듬었다.

10) 비씨툰 명문의 비평본은 몇 가지가 있다. R. Schmitt, *The Bisitun inscriptions of Darius the Great Old Persian Text*, Corpus Inscriptionum Iranicarum Part I, vol. 1 (Londo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1991)이 대한성서공회 성서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배철현(C.-H. Bae)의 Harvard University 박사학위 논문도 비씨툰 명문을 새롭게 탁본하여 번역한 성과를 담고 있다. C.-H. Bae, "Comparative studies of King Darius's Bisitun inscription"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2001). 비씨툰 명문이나 다리오에 관해 한국 학술지에 소개된 선행연구는 다음을 참조: C.-H. Bae, "Literary Stemma of King Darius's(522-486 B.C.E.) Bisitun Inscription: Evidence of the Persian Empire's Multilingualism", 『언어학』 36 (2003), 3-32; 배철현, "다리우스 왕(기원전 522-486년)은 조로아스터교 신봉자였나?", 『중앙아시아연구』 8 (2003), 1-28. 배철현의 두 논문은 그의 박사논문을 큰 수정 없이 그대로 게재한 것으로 그의 박사논문의 내용을 파악하기에 유용하다.

었다. 마침 두 마고스인 형제 가운데 하나는 고레스의 아들 스메르디스와 생김새가 매우 닮아 있었고, 이름도 마침 스메르디스였다고 한다. 마고스인 스메르디스(이후 가짜 스메르디스)는 앞으로 캄비세스 대신 고레스의 아들 스메르디스가 왕이 되었다고 하며 사방으로 전령을 보냈다(Herodotos III: 61).

이집트에 머무르는 중에 가짜 스메르디스의 반란 소식을 들은 캄비세스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급하게 수사로 돌아오다가 전에 상처를 입었던 부위의 상처가 악화하여 액타바나에서 사망한다. 사망하기 전에 캄비세스는 그가 예지몽에서 본 스메르디스가 자신의 배다른 형제 스메르디스가 아니라 마고스인 가짜 스메르디스임을 깨닫고 스메르디스를 죽인 사실을 후회한다(Herodotos III: 62-64). 동시에 캄비세스는 자신의 꿈과 관련된 이야기 및 가짜 스메르디스를 포함한 두 마고스인이 왕위를 강탈했음을 중요 신하들에게 전하며, 빼앗긴 왕권을 다시 아케메네스 가문이 차지하게 해달라는 유언을 모든 아케메네스인에게 남긴다(Herodotos III: 65).

그러나 캄비세스를 위한 복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고레스의 아들 스메르디스가 살아있다고 보았고, 캄비세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가짜 스메르디스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선정을 베풀며, 특히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민족에게 3년 동안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면제한다고 포고하기도 하였다(Herodotos III: 67).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난 뒤 오타네스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가짜 스메르디스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결국 가짜 스메르디스가 고레스의 아들 스메르디스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고, 사람들을 모아 휘스타스페스의 아들 다리오(혹은 다레이오스)를 비롯한 7인의 모임을 조직하였다. 7인회가 거사를 준비하는 시점에, 진짜 고레스의 아들 스메르디스를 죽이는 역할을 맡았던 프락사스페스는 가짜 스메르디스에게 자신이 진짜 고레스의 아들 스메르디스라고 위증해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프락사스페스는 가짜 스메르디스를 속이기 위해 그러겠다고 해 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뒤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힌다. 고레스의 아들 스메르디스는 이미 죽었으며,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 스메르디스는 마고스인 가짜 스메르디스라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결론적으로 7인회는 7개월간 페르시아를 통치하던 마고스 사람들을 제압하고 아케메네스 가문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 질서를 회복한다. 정치체도의 형식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¹¹⁾ 결국 군주제를 선택하게 되고 휘스타스페스의 아들 다리

11) 물론 이 시점(Herodotos, III, 80-82)에서 제시된 세 사람의 논쟁(a. 독재정치를 반대하고 민중정치 혹은 공화정을 지지했던 오타네스, b. 과두정치를 지지했던 메가뷔조스, c. 탁월한 사람의 군주에 의해 통치되는 군주제를 지지한 다리오)은 여러 서양 고전학자의 관심을

오가 새로운 왕으로 추대된다. 다리오는 페르시아 제국을 20개의 행정구역(사트라페이아)으로 나누며 태평성대를 이룬다.

2.3. 비씨툰 명문에서 다리오가 말하는 자신의 즉위

비씨툰 명문은 다리오의 즉위와 관련된 사건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묘사한다. 휘스타스페스의 아들이자 아케메네스의 후손 다리오는 귀족 출신으로 고대로부터 여러 왕을 배출했던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다리오는 가문이 배출한 9번째 왕이 되었다(Darius's Bisitun inscription[이하 DB] I.1-4).¹²⁾ 비씨툰 명문에서 다리오는 그가 아후라마즈다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고, 그에게 왕권을 수여했으며 많은 봉신 국가를 얻도록 도운 이가 바로 아후라마즈다였다고 거듭 주장한다(DB I.12-26).¹³⁾

다리오는 이어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가 고레스를 이어 왕이 된 장면부터 시작한다. 캄비세스가 즉위한 뒤 어느 시점에 그의 형제 바르디아¹⁴⁾를 사람들 몰래 살해했는데 사람들은 바르디아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후 캄비세스가 이집트 원정을 떠나자, 사람들은 캄비세스에 등을 돌렸으며 캄비세스에 관한 거짓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DB I.26-35). 그 시점에서 가우마타라는 이름의 마고스 사람이 일어나 스스로가 고레스의 아들 바르디아라고 거짓말하고는 비야크나달의 14번째 날에 반란을 일으켰다. 모든 민족이 캄비세스에게 반역하고 그를 따랐다. 가우마타는 기원전 522년 7월 1일로 추정되는 가르마파다달 9일에 왕권을 차지했다. 그 후 캄비세스는 죽음을 맞이했다(DB I.35-43).¹⁵⁾

받는 중요한 부분이다. 헤로도토스의 정치에 관한 견해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연구 목적과 범위를 고려하여 자세한 논의는 생략한다.

- 12) 이 기술은 다리오가 평범한 집안 출신이 아니라 아케메네스의 왕을 배출한 명문가 출신으로 왕이 되기에 적합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13) 비씨툰 명문에서 다리오왕이 아후라마즈다를 언급한 것은 현재 남아 있는 조로아스터교 문헌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그러나 조로아스터교 기원은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인도로 이주해 간 아리아인들의 베다 경전과 조로아스터교 경전 사이의 유사성, 페르시아 사람들과 아리아인들 간의 혈통적 유사성 등을 고려할 때 조로아스터교 경전의 형성 시기는 아리아인들이 인도로 이주해 간 기원전 1,500년-1,000년경 이전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M. 보이스, 『조로아스터교의 역사』, 공민국 역 (서울: 민음사, 2020) 참조.
- 14) 슈미트(R. Schmitt)는 그의 번역에서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따라 스페르디스로 번역하지만, 고대 페르시아어 원전에서는 바르디아로 표기하고 있음을 주의할 것.
- 15) 여기서 다리오는 캄비세스가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했다고 강조한다. 다리오가 캄비세스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리오가 왕위 찬탈자라는 의혹을 받아 즉위 초반에 많은 반대를 직면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리오가 주장하기를 가우마타가 찬탈한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왕위는 고대로부터 다리오의 집안에서 배출되었다. 그러나 마고스 사람 가우마타로부터 다시금 왕위를 가져올 의지를 가진 사람은 페르시아나 메디아나 그의 집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가우마타(혹은 가짜 바르디아)는 자신이 고레스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 바르디아를 알던 사람들을 살해하고 폭정을 일삼음으로써 사람들의 두려움을 샀다고 기록한다.¹⁶⁾ 사람들은 가우마타를 매우 무서워했고, 다리오가 왕권을 찾기 전까지 가우마타에 대하여 감히 언급하지도 못했다. 마침내 다리오는 바가야디달 10일(기원전 522년 9월 29일로 추정)에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마고스 사람 가우마타 및 그의 으뜸가는 추종자들을 죽이고 왕위를 찾았다(DB I.43-61). 다리오는 왕이 된 이후 가우마타가 약탈한 재산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고 가우마타가 파괴했던 예배 처소를 세우는 등 선정을 베풀려고 노력했다(DB I.61-71).

그런데 다리오왕이 가우마타를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엘람을 시작으로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메디아, 앗시리아, 이집트, 파르티아, 마르기아나, 사타귀디아, 스키티아 등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DB I.71-96; II. 1-8 등). 주로 페르시아 동부지역에서 벌어진 반란에서 다리오는 여러 반란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으며, 비씨툰 명문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평정된 수많은 지역의 반란 지도자들과 땅의 목록을 제시한다(특히 DB II-III 참조). 다리오 즉위 첫해(기원전 521-520년)의 반란 진압 성과를 요약한 기술(DB IV.2-31)에 따르면 그는 일 년 동안 19번 전투를 치러서 모두 이겼고, 9명의 왕을 사로잡았다.

2.4. 두 자료의 종합적 고찰

헤로도토스의 역사 기록과 다리오왕에 의해 기록된 비씨툰 명문의 기록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측면이 있기에 종합적 이해가 필요하다. 각 자료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기록은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 의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세로 사건을 보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리적 거리와 시점상의 거리, 그리고 헤로도토스가 직접 사건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과 기록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해야 했다는

16) 비씨툰 명문의 이 기록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서 마고스인 가짜 스페르디스가 각지에 세금을 면제하는 등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펼쳤다고 기록하는 것(Herodotos III: 67)과 상당히 다르다.

한계를 가지고 있음직하다. 반대로 다리오왕의 비씨툰 명문은 동시대에 페르시아 사람에 의해 기록된 것이지만, 다른 한 편 이해충들의 당사자에 의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자기변호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다.

두 기록이 모두 공통으로 받아들이는 사실은 캄비세스가 이집트 원정 길을 떠난 와중에 마고스 사람이 캄비세스에게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며, 마고스 사람이 캄비세스의 동생 스메르디스(혹은 바르디아)의 신분을 도용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다리오는 마고스 사람이 차지했던 페르시아의 왕좌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두 기록이 정반대로 기록하고 있는 몇 가지 사실들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헤로도토스의 글에서는 마고스인 가짜 스메르디스가 선정을 베풀었다고 하지만, 비씨툰 명문에서는 마고스인 가우마타는 폭정을 일삼았다고 기록한다. 둘째, 헤로도토스의 글에서 다리오는 마고스인 가짜 스메르디스에게 대항하여 일어난 반란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반란이 성공하여 왕권을 되찾은 뒤에는 평화가 이어졌던 것으로 묘사하는 것과 반대로, 비씨툰 명문에서는 다리오가 소수의 사람을 이끌고 마고스인 가우마타를 죽였고 그 사실이 알려지자, 각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한다.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다리오에 대하여 각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은 명백해 보이는데, 마고스인 가우마타가 폭정을 일삼았다면 다리오에 대한 반란이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최소한 마고스인 왕위찬탈자가 인기를 얻기 위해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들에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가 다리오왕이 지배하게 되니까 다시 엄격해진 조공 납부 등에 반대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추정한다.

2.5. 학개 및 스가랴 예언의 역사적 맥락

다리오왕의 즉위 전후에 벌어진 모종의 혼란한 상황은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 맥락이 될 수 있다. 522년경 예후드 속주에 살던 식민지 백성들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집트를 병합하던 캄비세스가 허겁지겁 본토로 돌아가는 모습을 목격했을 것이며, 곧이어 액타바나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이후 다리오왕이 즉위하여 다스리지만, 여러 반란이 일어나며 페르시아 제국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도 목격했다.¹⁷⁾

17) 특히 제국의 동부에 있던 속국들이 반란을 일으켜 다리오가 예후드 지방을 비롯한 제국의 서부에 신경 쓸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학개 예언자는 다리오왕 제이 년의 일곱째 달 이십일일(기원전 520년 10월경)에 “만군의 여호와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학 2:6-7, 『개역개정』)고 선포하였다. 이 시점은 초막절이 끝나는 시점으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다. 힘겨운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하면서 회복을 기대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또 두 달이 지나서 아홉 번째 달 이십사일(기원전 520년 12월경)에 학개 예언자는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엮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엮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엮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학 2:20-23, 『개역개정』)라고 선포하며 예후드 백성들과 지도자들(총독 스룹바벨,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학개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의 정치적 독립을 암시하는 매우 희망찬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예후드 백성들은 학개 예언자의 긍정적인 선포를 바탕으로 큰 힘을 얻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을 것이다.

페르시아 각지에서 일어난 식민지들의 반란과 이에 따른 학개 예언자의 희망찬 미래 예고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학개 예언자가 예고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학개 예언자가 희망 가득한 신탁을 선포한 시점에 멀리 페르시아 동부지역에서 다리오는 여러 반란을 거의 제압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¹⁸⁾ 본 논문에서 다루는 스가랴 1:11은 1:7-17의 맥락 속에 있는 구절이며,

18) 한편 다리오왕이 결정적인 승기를 잡은 것은 분명하지만, 다리오왕 2년 아홉 번째 달(기원전 520년 12월경)이나 열한 번째 달(기원전 519년 2월경)의 시점은 페르시아 동편의 반란을 완벽히 진압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비제회퍼(J. Wiesehöfer)가 비씨툰 명문에 대해 분석한 권위 있는 연구에 따르면, 비씨툰 명문은 아마도 한 번에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 두 단계에 걸쳐 생산되었으며, 첫해의 엄청난 성과를 기록한 첫 단계는 520년과 519년 사이에 새겨졌고, 그 이후에도 엘람 사람들과 스키타이 사람들과의 두 번의 후속 전투를 포함해서 518년에 추가적인 부분이 새겨졌다는 것이다. J. Wiesehöfer, *Der Aufstand Gaumātas und die Anfänge Dareios' I* (Bonn: Rudolf Habelt, 1978), 228-229; A. M. Wolters, “The Whole Earth Remains at Peace” (Zechariah 1:11): The Problem and an Intertextual Clue”, M. J. Boda and M. Floyd, eds., *Tradition in Transition: Haggai and Zechariah 1-8 in the Trajectory of Hebrew Theology* (New York: T & T Clark, 2008), 130에서 재인용. 비제회퍼의 지적은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 활동의 배경이 되는 시점에 다리오왕에 대항하여 각지의 반란이 일어났고 첫 1-2년 사이 대부분 진압되었지만, 다리오왕에 대한 반란이 완전히 진압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매우 희망찬 메시지를 전했다던 학개의 마지막 예언이 선포된 다리오왕 2년 아홉째 달 이십사일로부터 정확하게 두 달이 지난 열한 번째 달 이십사일(기원전 519년 2월경)에 선포된 말씀이다.¹⁹⁾ 그런데 불과 두 달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학개 2장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가라앉은 분위기에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어쩌면 다리오왕의 연승 기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을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가랴 1:11을 살펴보기로 한다.

3. 본문 관찰과 언어적 문제

스가랴 1:7-17은 스가랴가 밤에 본 여러 환상(슌 1:7-6:15) 가운데 첫 번째 환상이다. 스가랴가 밤에 환상을 보는데,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네 명의 말 탄 사람을 보게 된다. 말 탄 사람들은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 있는 야훼의 사자에게 온 땅을 둘러본 결과를 보고하였고(1:11), 이 보고가 끝난 뒤 야훼의 사자가 탄식하며 말하길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칠십 년이 되었나이다”(12절, 『개역개정』)라고 하였다. 이 호소에 대하여 하나님은 듣기에 좋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며 하나님의 성읍들이 다시 넘치도록 풍부하게 될 것이라는 응답을 준다(13-17절).

앞서 살펴보았듯이 초기 페르시아 제국의 아직 혼란스러운 정세를 고려해 보았을 때, 동시에 문맥을 고려했을 때 11하반절(כָּל־הָאָרֶץ יִשְׁבֶּת וְשָׁקֶטָה)의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였다는 번역은 이해하기 어렵다. 아직 페르시아 곳곳에서 싸움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뒤따르는 반응(12절)을 보면 11절은 분명히 부정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천사가 탄식하며 언제가 되어야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냐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의 상황이 아직 좋지 않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3.1. 주요 연구사

앞선 역사적 배경과 번역의 괴리는 볼드윈(J. G. Baldwin), 월터스(A. Wolters)나 쥬퍼트(M. Seufert) 등의 주석가들이 본문의 의미를 고민하게 만

19) 피터슨(D. L. Petersen)과 같이 제2스가랴(슌 9-14장)와는 달리 슌 1-8장은 학개와 연속성을 지닌 책으로 이해하는 견해를 따를 때 학개의 마지막 예언 이후 2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은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조: D. L. Petersen, *Haggai and Zechariah 1-8*, Old Testament Library (London: SCM Press, 1984).

든 이유가 되었다. 학자들은 혼란스러운 역사적 상황과 평화로운 듯 묘사되는 번역문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몇 가지 견해를 제안하였다.

먼저, 볼드윈이 1972년에 출판한 틴들 주석을 살펴볼 수 있는데, 볼드윈은 전통적인 해석(“all the earth remains at rest”)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째, 앞선 말 탄 자가 전해준 소식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둘째, 그 보도가 언급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그는 1:15를 근거로 땅의 평화는 불의와 비인간적인 행위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보았다. 11하반절의 첫 서술어인 נָשָׂא²⁰이 이사야 30:7에서는 이집트가 국제조약을 존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경멸적으로 사용되어 이 단어가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동사인 נָשָׂא는 종종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긴 했지만, 예레미야 48:11에서는 자신만 생각하는 모압의 무활동 및 게으름을 뜻하거나 에스겔 16:49에서 사마리아의 태평함을 꾸짖는 데에도 사용된 것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두 번째 동사가 정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슌 1:14)과 반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부정적이며, 결론적으로 스가랴 1:11하반이 말하는 평화는 산산이 부서지기로 운명 지워진 평화라는 것이다.²⁰⁾

볼드윈의 설명은 흥미롭지만, 만약 볼드윈이 생각한 것처럼 1:11하반이 말하는 평화가 산산이 부서지기로 운명 지워진 평화라면 그런 뉘앙스가 그의 본문 번역에도 반영되어야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은 그의 주석에서 아쉬운 부분이 되겠다.

볼드윈 이후, 월터스도 번역과 해석상의 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월터스가 사용한 방법은 유사한 다른 구문이 사용된 맥락을 탐구함으로써 답을 찾는 것이었다. 월터스가 비씨톤 명문²¹⁾에 관한 그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리오 2년 연말 당시까지 반란이 완벽히 진압되지 않았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11하반절에서 말하는 온 땅이 휴식과 평화 가운데 있었다는 보도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말 탄 사람의 보고를 20여 년 전에 일어난 바벨론의 멸망과 관련

20) J. G. Baldwin, *Haggai, Zechariah, Malachi: An Introduction & Commentary*,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24 (Leicester: IVP, 1972), 96.

21) 그는 여러 유럽의 학문 전통에 따라 베히스톤 명문(Behistun inscription)이라고 불렀다. 영어권 참고자료 중에는 베히스톤 명문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현지 지명의 소리는 비씨톤이 더 근접하다는 고대근동학자들의 견해를 따라 비씨톤 명문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스가랴 1:11과 유사한 관용구를 보여주는 이사야 14:7의 맥락에서 이해하자는 견해이다.

그가 참조한 NRS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The whole earth is at rest and quiet(קָטָן וְשָׁקֵט); they break forth into singing.” 스가랴서에서는 분사를 사용하고, 이사야서에서는 완료 형태를 사용하는 등의 차이는 있지만 의미상 스가랴 1:11하반과 이사야 14:7이 거의 같다는 점에 월터스는 관심을 가진다. 그가 이해하기에 이사야 14장은 바벨론 왕에 대한 조롱 시이고, 여기서 온 땅의 평화란 바벨론 왕의 압제로부터 놓이는 것이다. 이사야 14장의 청중은 온 땅은 바벨론 왕이 죽을 때에야 압제로부터 놓임을 경험하게 된다. 월터스의 견해에 이사야 14:7에서 예견된 사건은 스가랴의 예언으로부터 불과 십여 년 앞선 과거 시점에 고레스와 페르시아 사람들에 의해 일차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월터스는 스가랴 1:11의 평화를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월터스의 견해에는 여러 가지 난점도 있다. 스가랴 1:11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지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으로 평화를 누린다고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월터스는 이에 대한 반박으로 비록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제국의 교체라는 관점에서 보면 20년은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또한 멸망한 신바벨론 제국의 후계자 느부갓네살 3세와 4세가 다리오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다가 스가랴의 예언 직전에 진압되었음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비판에 대응한다.²²⁾

월터스 이후 쥬퍼트는 월터스의 연구를 전반적으로 따라가지만 그의 견해를 약간 확장시킨다. 스가랴가 1:11과 관련해서 암시하고 있었던 본문이 이사야 14장보다는 다른 두 개의 본문(렘 30:10; 46:27)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²³⁾ 월터스와 쥬퍼트의 해석은 1:11의 의미와 역사적 상황과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공헌점이 있지만, 아쉬운 점은 월터스나 쥬퍼트가 언급하는 시기가 스가랴와 동시대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을 어떻게 해소할

22) A. M. Wolters, ““The Whole Earth Remains at Peace” (Zechariah 1:11)”, 128–143. 월터스의 견해는 NIV(2011년 판), NRSVue(2021년 개정판) 각주에 반영되었으며, 후속 영미권 학자들의 연구에도 인용되며 영향을 끼쳤다. 예: M. R. Stead, *The Intertextuality of Zechariah 1-8* (New York: T&T Clark, 2009), 90-92; L.-S. Tiemeyer, *Zechariah's Vision Report and Its Earliest Interpreters: A Redaction-Critical Study of Zechariah 1-8* (London: Bloomsbury T&T Clark, 2016), 50.

그러나 이러한 입장이 최근에 개정된 LB(2017)에서는 반영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월터스의 견해의 영향력은 영어권에 한정된 듯하다.

23) M. Seufert, “Zechariah 1.11's Allusion to Isaiah and Jeremiah”,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42:2 (2017), 247-263.

지가 관건이다. 최소 20년 차이 나는 시간 간격은 윌터스와 주퍼트의 설명만으로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다.

본 연구자는 11하반절을 번역할 때 그동안의 번역 전통보다는 히브리어 원어의 본래 의미를 식민지 백성이자 귀환자들의 맥락에 비추어 뉘앙스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11절의 조용하고 평안하였다는 번역어의 원어는 ‘앉아있다’ 혹은 ‘머무르다’라는 뜻을 가진 **יָשַׁב**과 ‘쉬고 있다,’ ‘손을 늘어뜨리고 있다’라는 뜻을 가진 **שָׁקַט**가 합쳐진 표현이기 때문에 각 단어의 주요 용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능한 용례 가운데 본문의 맥락과 잘 맞는 용례에 주목하기로 한다.

3.2. ‘요셰벳(**יִשְׁבֵּת**)’(1:11하)

이 단어의 어근이 되는 **יָשַׁב**은 아래 용례에서와 같이 주로 (1) ‘(자리에) 앉다’ 혹은 (2) ‘(어떤 장소에) 거주하다/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וּבְמוֹשָׁב לְצִיּוּם לֹא יָשַׁב

그는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시 1:1)

וַיֵּשֶׁב בְּאַרְצוֹנוֹר קְרַמְת־עֵדֶן

그가 에덴 동쪽 못 땅에 **거주하였다**(창 4:16)

한편, 이 어근의 용례 가운데 일부는 — 영어 혹은 다른 서구권의 언어로 뉘앙스를 적절하게 번역하기 어렵지만 — 한국어 ‘주저앉다’의 뉘앙스로 번역되어야 하는 사례들도 성경 속에서 여러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וַתֵּשֶׁב מִנְגֵד וַתִּשָּׂא אֶת־קוֹלָהּ וַתִּבְרַךְ

그녀는 그 앞에 **(주저)앉아서** 목소리를 높여 울었다(창 21:16)

עַל נְהַרֹת כְּבֹל שָׁם יֵשְׁבֵנוּ גַם־בְּכִינוֹ

바벨론 강가 거기에 우리는 **(주저)앉아서** 울었다(시 137:1)

וַיִּכְפוּ וַיֵּשְׁבוּ שָׁם לִפְנֵי יְהוָה וַיִּצְוּמוּ

그들이 울며 거기 야훼 앞에 **(주저)앉아서** 금식했다(삿 20:26)

וַיֵּשְׁבוּ שָׁם עַד־הָעֶרֶב לִפְנֵי הָאֱלֹהִים וַיִּשְׂאוּ קוֹלָם וַיִּבְכוּ

그들이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목소리 높여 울었다(삿 21:2)

위 용례들에서 앉는다는 동작은 단순히 자리에 편하게 앉아 있거나 어떤

곳에 조용히 거주하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 금식하거나 눈물을 흘릴 정도로 좌절한 상황 속에서 땅에 털썩 주저앉았던 것이다.

여기서 사례로 제시된 용례 가운데 ‘(주저)앉는다’라는 동작과 함께 사용된 용례는 ‘울다’라는 동사와 함께 사용되었다. ‘울다’, ‘울었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모두 114번 사용되었는데,²⁴⁾ 다른 동사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비해 ‘(주저)앉아서’ 우는 경우 슬픈 정도가 다른 상황에 비해 훨씬 크고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광야에서 식수가 다 떨어지고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을 봐야 했던 어머니 하갈의 슬픈 마음(창 21:16), 싸움에서 패전하여 많은 사람이 죽은 뒤 슬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삿 20:26), 고작 육백 명만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짝을 찾지 못하여 한 지파가 사라질 상황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슬퍼하는 마음(삿 21:2), 나라를 잃어버리고 강제로 이주당하여 슬퍼하는 마음(시 137:1) 등의 경우는 구약 성서 속 인물들이 경험하는 좌절과 슬픔의 깊이가 가장 깊은 사례들 중 하나를 보여준다.

우는 동작과 결합하지 않은 경우 중에도 몇몇 좌절 속에 주저앉음을 비교적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다.

קָרַעְתִּי אֶת-בְּגְדֵי וּמַעֲלִי וְאֶמְרָטָה מִשֶּׁעַר רֹאשִׁי וְזָקְנִי וְאֶשְׁבֶּה מִשּׂוּמֹם
나는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밀고 기가 막혀 (주저)앉았다(스 9:3)

וַיֵּשְׁבוּ אִתּוֹ לְאֶרֶץ שִׁבְעַת יָמִים וְשִׁבְעַת לַיְלוֹת וְאִין-דָּבַר אֵלָיו דָּבָר
그들은 그와 함께 칠 주야 동안 땅에 (주저)앉아 있으면서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욥 2:13)

이 본문 가운데 에스라 9:3의 경우 『개역한글』, 『개역개정』 성경은 앉았다고 번역하지만, 『새번역』 및 『공동개정』은 필자와 같이 한국어의 어감을 더욱 잘 살리는 ‘주저앉았다’라는 번역어로 번역하고 있음이 흥미롭다.

3.3. ‘쇼케테트(שִׁקְטָה)’(1:11하)²⁵⁾

이 단어에 대해서는 한 세기 전에 출간된 BDB사전과 비교적 최근의

24) J. R. Kohlenberger and J. A. Swanson, *The Hebrew English Concordance to the Old Testament with the New International Version* (Grand Rapids: Zondervan, 1998), 271; Accordance Bible Software 14.

25) 히브리어 원전의 발음을 그대로 음역하면 사실 쇼카테트이지만, 원래 분사 쇼케테트가 강한 분리약센트인 실록 때문에 소리가 쇼카테트로 바뀐 점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쇼케테트로 음역한다.

HALOT이나 DCH에서 제시하는 의미가 제법 다르다. 오랫동안 히브리어 연구에 영향을 끼친 아랍어에서는 이 어근을 ‘매우 조용한’의 의미로 주로 사용하는데,²⁶⁾ 비교 셈어 연구에서 아랍어에 크게 의존하는 BDB에서 이 어근을 ‘조용한’, ‘방해받지 않는’의 의미를 중심으로 사전적 의미를 제안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BDB에서는 땅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에 평화의 의미가 있을 수 있음도 몇몇 사사기 용례 등을 중심으로 제안하고 있다. 아랍어를 바탕으로 하는 BDB 등의 옛 히브리어 사전이 제시하는 의미는 오랫동안 스가랴 1:11하반의 번역에 크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1930년대 이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견된 라기스 오스트라콘 등 여러 명문의 용례를 살필 때 이 어근의 더욱 폭넓은 — 그리고 대부분의 성서 속 용례의 번역에 적용하기 더 적절한 — 의미가 발견된다. 성서 시대에 기록된 명문들을 바탕으로 추측해 볼 때 שָׁקַט 의 일차적인 의미는 손을 떨어뜨리고 있는 동작과 관련된 것 같다. HALOT에 따르면 이 단어는 이스라엘 명문 가운데 Lachish 6:6 이하에서 히프일 형태로 ‘누군가의 손을 떨어뜨리도록 허용하다’(“to allow someone’s hands to drop”)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²⁷⁾ 또한 아마도 부정사 히프일 형태로 ‘흐느적거리게 만들다’, ‘힘 없이 만들다’(“to make limp”)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²⁸⁾ 칼 수동분사 형태에서 ‘머리나 목 등을 숙인’, ‘풀이 죽은’(“drooping [of the head or neck]”)의 일차적인 의미가 제안된다.²⁹⁾ 이 어근의 고대 명문이나 이웃 언어에서 사용된 용례들을 바탕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것처럼 여겨진다.

구약 성서 번역 다수에서 이 동사를 “쉬다” 혹은 “조용하다” 및 “평온하다” 의미로 번역하고 있는데 대표적 사례들을 아래와 같이 찾아볼 수 있다.

26) 아랍어 의미를 알려준 한동희 박사(Ph.D., University of Jordan)에게 감사드린다.

27) 참고: H. Donner and W. Röllig, *Kanaanäische und aramäische Inschriften*, vol. 2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66), 197(text 196); C. F. Jean and J. Hoftijzer, *Dictionnaire des inscriptions sémitiques de l'Ouest* (Leiden: Brill, 1965), 318; J. Hoftijzer and K. Jongeling, *Dictionary of the North-West Semitic Inscriptions* (Leiden: Brill, 1995), 1186; HALOT 4, 1641에서 재인용. DCH에 따르면 라기스 오스트라콘 6:7의 용례라고 특정하고 있다.

28) J. C. L. Gibson, *Textbook of Syrian Semitic Inscriptions*, vol. 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1, 1975), 46; HALOT 4, 1641에서 재인용.

29) J. Levy, *Neuhebräisches und Chaldäisches Wörterbuch über die Talmudim und Midraschim*, vol. 4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63), 602a; G. H. Dalman, *Aramäisch-Neuhebräisches Wörterbuch zu Targum, Talmud und Midrasch* (Göttingen: Eduard Pfeiffer, 1938), 433b; HALOT 4, 1641에서 재인용.

וְהָאָרֶץ שְׁקֵטָה מִמְלֻחָמָ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수 11:23; 14:15)

וַתֵּעַז יְדוֹ עַל כּוֹשְׁרֵשׁעֵתָיִם וַתִּשְׁקֵט הָאָרֶץ אַרְבָּעִים שָׁנָה
그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 그 땅이 사십 년간 **평온했다**(삿 3:10-11)

최근의 권위 있는 사전들이 제시하는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추론해 볼 때, 평온했다는 의미로 번역되는 사례들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더 이상 적군이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과 관련된 평화를 말하는 것이다. 이때 동사 어근의 주어는 땅(הָאָרֶץ)이며 땅이 힘 없이 있는 상황 혹은 손을 늘어뜨리고 쉬고 있는 상황을 평온함으로 번역한 것이다. 비유컨대, 제국의 힘으로 피지배 국가들을 억눌러서 만들어 낸 평화, 즉 팩스 로마나(pax Romana) 혹은 팩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와 같은 상황이다. שְׁקֵטָה의 의미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한 정치사회적 상황이 바뀌면 정반대 의미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³⁰⁾

이 어근의 의미가 문맥에 따라 조금씩 변화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들을 아래에서 살펴볼 수 있다.

כִּי־עָתָה שָׁכַבְתִּי וְאִשְׁקוּט יִשְׁנֵנִי אִם יָנוּחַ לִי
(그렇지 않았다면)³¹⁾ 이제 나는 누워서 **기운 없이** 쉬었을 것이니(욘 3:13)

וְסִרָה קִנְאִתִּי מִמּוֹד וְשִׁקְטָתִי וְלֹא אֶכְעַס עוֹד
그리고 내 미움이 네게서 떠나며 내가 **누그러져서** 다시는 노하지 않을 것이다(겔 16:42)

욘기 3:13의 앞에는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먹는 것과 관련된 상황을 묘사하는데, 그렇지 않게 된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에 『개역개정』 등에서 ‘평안히’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배고픈 아기는 평온한 상태보다는 배고픔으로 인해 누워서 기운이 없는 상태로 쉬는 모습이 더욱 적절한 묘사일 것이며, ‘기운이 없다’라는 뜻이 이 어근의 원래 의미와도 더 잘 맞을 것이다. 에스겔 16:42의 경우에도 미움이 떠나고 즉시 ‘마음이 평안’했다고 번역하는 『개역개정』의 번역보다는 ‘누그러진다’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어근의 의미를 살릴 뿐 아니라 ‘미움이 떠남 → 마음이 누그러짐 → 다시

30) 관련 논의는 바로 3.5. 종합 부분에서 계속된다.
31) 여기서 히브리어는 인과관계에 사용되기도 하는 כִּי가 사용되었는데, 앞 문장들이 부정적인 답을 예상하는 수사의문문이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성경 대부분이 ‘그렇지 않았다면’ 등으로 번역한다.

는 노하지 않음'으로 더 좋은 문맥상 흐름을 보여준다.

3.4. 온 땅(כָּל־הָאָרֶץ)

11하반절에 나타난 동사들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동사들의 주어가 되는 כָּל־הָאָרֶץ의 범위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온 땅의 범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스가랴서 환상 속 사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당시의 시대 상황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좁은 의미에서 온 땅은 정황상 첫 번째 환상 메시지가 주어진 대상이 스가랴와 예후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귀환한 백성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예후드 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두 달 전에 학개 예언자의 희망찬 메시지를 바탕으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던 백성들이 모종의 이유로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고, 힘 없이 손을 쉬게 하고 있는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11하반절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본문에서 온 땅이라고 하는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가 있는 표현을 단순히 예후드 지방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넓은 의미로 온 땅의 범위를 예후드를 넘어 페르시아 지역의 속주로 있는 대부분의 지역 사람들을 일컫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씨톤 명문은 다리오왕이 집권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반란을 평정하기 시작한 뒤 1년 안에 19차례 싸워서 이기고 9명의 왕을 사로잡았다고 보도한다. 아직 반란이 완전히 평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독립을 꿈꾸던 식민지들을 좌절시킬 만하다. 따라서 페르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던 절대다수의 속주 백성들 역시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고, 힘없이 있는 상황 묘사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3.5. 종합

전통적인 성서번역들에서는 위 사례들에서 어근이 가진 원래의 일차적인 의미인 '손을 떨어뜨린다', '힘없게 된다', '풀이 죽은' 등의 의미가 아니라 '평온', '조용한', '쉬다' 등의 긍정적인 의미로 번역했다. 이 동사가 가장 많이 사용된 사례가 역사서 속에서 갈등을 극복하고 더이상 싸움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를 누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평온하며 조용했다는 번역은 스가랴 1:11에서 시작되는 문맥이나 역사적 상황과 잘 맞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의 학자들은 앞에서 요약한 것과 같

이 번역은 그대로 둔 채로 문맥 해석을 다르게 시도했다. 이러한 제안들은 참신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계점도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번역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어의 의미는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회언어학적 관점³²⁾에서 볼 때 화자와 청중의 상황이 나 처지가 바뀌면 그 의미가 정반대로 달라질 수 있는 사례가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앉는다는 동작과 관련하여 왕좌에 앉을 때에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이지만, 바닥에 주저앉을 때에는 초라하고 좌절된 상황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승자의 관점에서 볼 때 패자가 힘을 잃고, 풀이 죽고, 손을 축 늘어뜨린다면 그것은 싸움이 끝나고 평화가 왔음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패자로서 느끼는 감정은 평온한 상태와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으며 좌절하여 의기소침한 상태를 의미할 것이다.

스가라서는 예후드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살아가던 시절을 반영하는 책이기 때문에 식민지 주민들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번역해야 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우리의 성서 이해에 크게 영향을 끼쳐온 서구의 성서학자들은 주로 자신들의 나라가 다른 나라를 압제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식민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전하거나 다른 나라에 주권을 빼앗긴 뒤 가지는 울분이나 한스러운 정서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 이런 까닭 때문에 그동안 대부분의 성서 연구는 נַפְּשָׁא 가진 이중의 의미를 헤아리지 못했을 것이다.³³⁾ 한국인의 경험은 그동안 간과되었던 예후드 식민지 주민들의 심정을 제대로 헤아려 본문을 새롭게 번역하고 해석하는 데 공헌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다.

32) 사회언어학적 분석 방법론으로 연구된 최신의 연구로 김영복(Y. B. Kim)의 연구서를 참고할 수 있겠다: Y. B. Kim, *Hebrew Forms of Address: A Sociolinguistic Analysis* (Atlanta: SBL Press, 2023). 이 책에서 저자는 발화자와 수신자 사이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발화의 명사형 패턴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사실 이러한 사회언어학적 관점은 한국어 번역에서도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의 높임법 혹은 존대법은 발화자와 수신자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높임법과 관련한 주요 연구는 다음을 참조: 조지윤, “존대법 번역과 성경 번역 접근법”, 『성경원문연구』 25 (2009), 127-148; 김성언, “정중 어법과 우리말 존대법 - 에스더기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7 (2015), 84-106.

33) 식민 지배를 겪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20세기 후반부터 탈식민주의 성서해석이 주목받기 시작한 이후에나 서구 성서학자들이 조금씩 헤아릴 수 있게 되었다. 한국어로 번역된 탈식민주의 성서비평의 주요 연구서로 다음을 참고: R. S. 수기르타라자, 『탈식민주의 성서비평』, 양권석, 이해청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19).

4. 번역 제안과 문맥을 고려한 제1스가랴의 새로운 읽기

스가랴 1:11의 새로운 번역은 불과 반 절에 해당하는 짧은 절이지만 스가랴가 살아가던 시대의 상황 이해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스가랴서 전반적인 문맥 이해에도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스가랴 1:11하반 번역에 관한 제안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스가랴 1-8장 전체의 흐름을 새롭게 파악해보기로 한다.

4.1. 스가랴 1:11하반 번역 제안

앞의 논의를 정리하며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직역하자면 온 땅이 앉아 있고, 손을 늘어뜨리고 있다는 의미이다. 대부분의 번역은 힘든 일을 끝내고 잠시 앉아서 손을 쉬게 하면서 평화롭게 휴식을 누리는 장면을 연상하고 있는 듯하다. 손을 늘어뜨리고 있다는 표현은 종종 쉬고 있다는 의미로 여겨져 왔기에 긍정적으로 묘사된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예후드 사람들의 처지에서 온 땅이 앉아 있고 손을 늘어뜨리고 있다는 의미는 평안하고 조용하다기보다는 ‘(주저)앉아 있고, 손을 늘어뜨리고 (축 처져)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온 땅이 주저앉아서 손을 늘어뜨리고 축 처져 있다’라는 어감을 반영할 수 있는 번역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번역은 학개서에서 스가랴 1-8장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4.2. 제1스가랴의 문맥 새롭게 읽기

학개와 스가랴 예언서를 이어서 읽으면 다음과 같은 사건 흐름을 짐작할 수 있다. 먼저, 학개 예언자의 희망찬 메시지 선포(기원전 520년 10월 및 12월경)를 통하여 예후드에 사는 귀환자들은 새로운 희망을 받았으며 성전의 터 닦는 작업부터 성전 재건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학개의 희망찬 메시지 선포에도 불구하고 일은 뜻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학개의 예언이 마지막으로 선포된 것은 스가랴 1:7-17 본문으로부터 불과 2개월 전의 일이다. 그런데 새로운 번역을 따르면 스가랴의 첫 번째 환상 본문은 두 달 사이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지 온 땅의 백성들이 한창 일하

고 있어야 할 시점에 열심히 그리고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주저)앉아서 손을 늘어뜨리고 있음을 보도한다.³⁴⁾ 그런 백성들을 보고, 12절에서 주님의 천사가 귀환자들을 위해 증보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 벌써 칠십 년이나 되었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맡은 천사가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와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으로 첫 번째 환상 장면이 매듭짓는다. 본문을 이런 문맥 흐름에서 읽을 때 11절과 12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있다.

첫 번째 환상이 가진 의도는 백성들이 좌절하고 있는 상황을 보도하면서 좌절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 약속(1:13-17)을 새롭게 확인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³⁵⁾ 좌절 혹은 문제상황으로부터 회복과 새롭게 일어섬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볼 수 있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백성들이 좌절하며 문제상황 속에 있다가 회복의 약속을 받아 희망으로 전환되는 스가랴 1:7-17의 패턴은 학개서로부터 시작하여 스가랴 1-8장 전반을 통틀어 반복되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계기가 되어 본격적으로 시작한 성전 재건 작업은 사실 어려운 현실적 문제들을 맞닥뜨렸다. 약 5년간의 성전 재건 공사 가운데 예후드 백성들은 순간순간 좌절하고 낙심했을 것이다. 학개서와 제1스가랴에

34) 예후드 사람들이 주저앉아서 손을 힘없이 늘어뜨리고 있는 모습을 초래한 원인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어 예후드 사람들이 좌절했을 가능성이 있다. 학 2:19에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을 것이다. 둘째로, 다리오왕 2년은 페르시아 제국의 반란과 혼란이 진정되어 가던 시점이었는데, 학개는 페르시아 제국의 혼란 덕분에 다윗의 후손 스투바벨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독립 국가가 생겨나 세계를 지배하게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두 달 사이 들려온 소식이 다리오왕의 연승에 관한 소식이라면, 독립을 기대했던 예후드 백성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었을 수 있다.

35) 회복의 약속 가운데 15절에 나오는 안일한 나라들(אֲנִי־הַיְיָ אֱלֹהֵי יִשְׂרָאֵל / 『개역개정』은 “안일한 여러 나라들”이라고 번역하는데, 나라들이 복수로 사용되긴 했지만 ‘여러’라는 형용사가 사용된 것은 아니기에 수정이 필요함)이 어떤 나라들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마이어스 부부(C. and E. Meyers)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한다. 하나는 북 왕국 이스라엘과 남 왕국 유다를 침공해 멸망시킨 앗시리아와 바벨로니아이며, 두 번째로 페르시아이다. 특히 페르시아의 경우 관용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예후드가 완전한 독립을 이루거나 다윗 왕조를 재확립시키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대상이 되었다고 묘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C. L. Meyers and E. M. Meyers, *Haggai, Zechariah 1-8*, Anchor Bible 25B (New York: Doubleday, 1984), 121. 안일한 나라들이 페르시아를 뜻할 때도 지배계층인 상층부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경고의 말이라 이해할 수 있으며, 11하반절의 온 땅에 해당하는 식민 지배를 받는 나라들을 일컫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 나타나는 ‘좌절 → 격려와 회복’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되는 사실은 아무래도 5년간의 성전 재건 공사 중에 있었던 숨은 어려움과 극복이 반복되었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 짐작해본다. 어쩌면 예후드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스가랴 예언자를 통하여 시의적절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덕분에 성전이 완공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학개와 스가랴서에서 좌절과 낙심으로부터 격려와 회복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하여 첫 번째 환상 이후 이어지는 환상 장면들의 짜임새를 살펴본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환상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성경 장절 구분에서 스가랴 1:18-21과 2:1-13에 위치하지만, 마소라 본문(MT)의 장절 구분에서는 한 장(2:1-17)에 모여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성경 장절 구분에서라면 장이 바뀌기 때문에 두 환상이 관련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MT 등의 고대 사본에서는 두 환상이 연이어 한 편의 드라마를 그리는 것 같은 장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두 환상을 이어서 살펴볼 수 있다. 두 번째 환상은 처음에 좌절스러운 장면 보도로 시작한다. 네 뿔(여러 나라의 군사력을 상징함)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괴롭히는 좌절스런 장면을 그리는 것이다(스 1:18-21), 이어지는 세 번째 환상에서 회복에 방점이 찍힌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말씀이다(스 2:4, 10-13).

네 번째 환상(스 3:1-10)에서 처음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사탄이 대적하며,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 역시 다른 스가랴의 본문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이고 속상한 장면이 먼저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도록 한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어서 증언하기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면 내 종 싹(가지/Branch로 번역하기도 함)을 나게 할 것이라고 한다. 다윗의 계보에서 나올 미래의 왕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것이다.

다섯 번째 환상(스 4:1-14)에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보이는데, 예언자는 처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며 좌절스런 모습을 보여준다(4-5절, 13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예언자에게 하나님은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 하나님의 영으로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려주며(6절), 또 두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를 세울 것(14절)이라고 하며 희망을 준다.

물론 연이어 나오는 여섯 번째 환상(슌 5:1-4)과 일곱 번째 환상(슌 5:5-11)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으로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읽기는 어려운 본문이다. 다만 공동체가 겪고 있던 여러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공동체를 더럽히는 악한 요소들을 제거해야 하는 필요가 있으므로 심판과 관련된 본문이 연달아 등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두 개의 심판과 관련된 환상이 나타난 뒤에 여덟 번째 환상(스가랴 6:1-8)과 이어지는 예언자의 상징적 행동에서도 다시 한번 심판이나 좌절로부터 희망과 회복으로 바뀌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환상과 유사하게 말들이 사방을 다니는데, 첫 번째 환상에서 온 땅이 주저앉아 있고, 낙심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마지막 환상에서 보여준다. 마지막 환상과 뒤따르는 예언자의 상징적 행동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기대하게 한다. 온전한 회복을 넘어 6:15에서 기대하는 것과 같이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을 예견함으로 이스라엘이 겪어보지 못했던 희망찬 미래를 예견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스가랴 1:11하반 번역을 당시 페르시아의 역사적 배경, 식민지 속주 예후드 사람들의 좌절된 상황을 반영하여 번역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를 바탕으로 ‘온 땅이 (주저)앉아 있으며 손을 축 늘어뜨리고 있다’로 번역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구체적인 표현은 번역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좌절과 낙심, 의기소침, 무기력함이 잘 드러나는 번역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본 연구를 통하여 제안하는 첫 번째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1:11하반을 논문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이해할 경우 첫 번째 환상 속 패턴(깊은 좌절 → 희망)이 스가랴 1-8장의 이어지는 밤 환상 본문 전체에서 반복되는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말씀 선포를 통해 의기소침한 예후드 백성들을 격려하고 회복시키는 장면이 반복되는 것이다. 비슷한 목적과 메시지를 가진 환상들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예후드 사람들의 좌절이 5년간의 성전 재건 공사 가운데 거듭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며, 좌절과 의기소침이 반복될 때마다 —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목양하는 것처럼 —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 거듭거듭 공동체를 격려하며 일으켰음을 행간을 읽어 짐작할 수 있다.

사실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을 듣고도 곧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는 모습은 학개와 스가랴 시대 사람들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신앙과 삶 속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다. 스가랴 1:7-17의 첫 번째 환상 속에서, 또 이어지는 스가랴의 환상 장면 속에서 그려지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쉽게 좌절하는 백성들을 꾸짖기보다는 다시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는 분으로서의 모습이다. 스가랴 1-8장에서 거듭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번 실패하고 좌절해도 결코 실망하시거나 짜증 내시지 않고, 후속 환상 보도를 통하여 다시금 비슷한 격려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며 예후드 성전 재건 공동체를 도우시는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학개와 스가랴 시대의 성전 재건 공사에는 당대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어려운 상황과 거듭된 좌절을 극복하고 수년간 부단히 노력하여 마침내 성전 재건에 성공해 냈다.

초반부터 의도했던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지라도 끝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전 재건과 같은 중요한 일을 이루어낸 예후드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준다. 어려운 시대를 살았으면서도 좌절로부터 새롭게 일어나는 일을 거듭했던 예후드 사람들의 모습은 견고한 회복탄력성을 가진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기에 스가랴서는 회복을 꿈꾸지만 수시로 좌절하고 의기소침하는 오늘날의 성서 독자들에게도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Keywords)

다리오왕, 스가랴 1:11, 성경 번역, 헤로도토스, 비씨툰 명문.

Darius the Great, Zechariah 1:11, Bible Translation, Herodotus, Bisitun Inscription.

(투고 일자: 2024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24년 2월 22일, 게재 확정 일자: 2024년 4월 15일)

<참고문헌>(References)

-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9.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 『성경전서 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1.
- 김성연, “정중 어법과 우리말 존대법 - 에스더기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7 (2015), 84-106.
- 김인화, “아케메네스조 다리우스 1세의 왕권 이념 형성과 그 표상에 대한 분석”, 「서양고대사연구」 38 (2014), 37-72.
- 배철현, “다리우스 왕(기원전 522-486년)은 조로아스터교 신봉자였나?”, 「중앙아시아연구」 8 (2003), 1-28.
- 보이스, M., 『조로아스터교의 역사』, 공원국 역, 서울: 민음사, 2020.
- 수기르타라자, R. S., 『탈식민주의 성서비평』, 양권석, 이해청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19.
- 조지윤, “존대법 번역과 성경 번역 접근법”, 「성경원문연구」 25 (2009), 127-148.
- 피셔, 알렉산더 아킬레스, 『구약성서 본문: 역사와 본문비평, 에른스트 뷔르트바인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입문서에 대한 새로운 개정』, 김정훈 외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0.
- 헤로도토스, 『역사』, 천병희 역, 파주: 도서출판 숲, 2009.
- Bae, C.-H., “Comparative studies of King Darius’s Bisitun inscription”,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2001.
- Bae, C.-H., “Literary Stemma of King Darius’s(522-486 B.C.E.) Bisitun Inscription: Evidence of the Persian Empire’s Multilingualism”, 「언어학」 36 (2003), 3-32.
- Baldwin, J. G., *Haggai, Zechariah, Malachi: An Introduction & Commentary*,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24, Leicester: IVP, 1972.
- Boda, M. J., *The Book of Zechariah*,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2016.
- Clark, D. J. and Hatton, H. A., *A Handbook on Haggai, Zechariah, and Malachi*, UBS Handbook Serie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2002.
- Cook, J. M., *The Persian Empire*, New York: Barnes & Noble, 1993.
- Herodotus, *Herodotus: with an English Translation, Books III-IV*, vol. II, A. D. Godley, trans., Loeb Classical Libra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38.
- Kim, H., *Multiple Authorship of the Septuagint Pentateuch: The Original Translators of the Pentateuch*, Leiden: Brill, 2020.
- Kim, Y. B., *Hebrew Forms of Address: A Sociolinguistic Analysis*, Atlanta:

SBL Press, 2023.

- Kohlenberger, J. R. and Swanson, J. A., *The Hebrew English Concordance to the Old Testament with the New International Version*, Grand Rapids: Zondervan, 1998; Accordance Bible Software 14 version.
- Meyers, C. L. and Meyers, E. M., *Haggai, Zechariah 1-8*, Anchor Bible 25B, New York: Doubleday, 1984.
- Petersen, D. L., *Haggai and Zechariah 1-8*, Old Testament Library, London: SCM Press, 1984.
- Schmitt, R., *The Bisitun inscriptions of Darius the Great Old Persian Text*, Corpus Inscriptionum Iranicarum Part I, vol. 1, Londo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1991.
- Seufert, M., “Zechariah 1.11’s Allusion to Isaiah and Jeremiah”,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42:2 (2017), 247-263.
- Stead, M. R., *The Intertextuality of Zechariah 1-8*, New York: T&T Clark, 2009.
- Tiemeyer, L.-S., *Zechariah’s Vision Report and Its Earliest Interpreters: A Redaction-Critical Study of Zechariah 1-8*, London: Bloomsbury T&T Clark, 2016.
- Wiesehöfer, J., *Der Aufstand Gaumātas und die Anfänge Dareios’ I*, Bonn: Rudolf Habelt, 1978.
- Wolters, A., ““The Whole Earth Remains at Peace” (Zechariah 1:11): The Problem and an Intertextual Clue”, M. J. Boda and M. Floyd, eds., *Tradition in Transition: Haggai and Zechariah 1-8 in the Trajectory of Hebrew Theology*, New York: T & T Clark, 2008, 128-143.

<Abstract>

A Translation of Zechariah 1:11b with Its Historical Contexts and Literary Approach

Ki-Min Bang
(Kangnam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suggest an alternative translation and exegetical ideas for Zechariah 1:11b, a report by a horse rider after patrolling the whole earth in the first night vision of Zechariah. Bible translators conventionally translate כָּל־הָאָרֶץ as “the whole earth at rest and in peace”(NIV 2011). However, this conventional translation causes problems in terms of historical and literary contexts: (1) the second year of Darius the Great was not peaceful, so such a translation creates discrepancies with biblical history; (2) Rather than praising God after the report, the messenger of Yahweh laments. Thus, the nuance of the messenger’s report must have been negative.

To find a better translation for Zechariah 1:11b, it first discusses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second year of Darius the Great with Herodotos’s *Histories* and the Bisitun inscription. All written historical resources witness severe political and military conditions against Darius the Great. Darius’s early reign was never peaceful. Second, it discusses its literary context and the occurrences of two keywords יִשְׁבֹּת and שָׁקַטָּה which may have deeper meanings than “remains at peace and rest.” Through case studies of these two vocabularies, this paper suggests translating יִשְׁבֹּת as the gesture of sitting in depression and frustration, and שָׁקַטָּה as the gesture of dropping hands and heads after being defeated by someone.

The new suggested translation of Zechariah 1:11b may affect the translation and exegesis of the entire book of First Zechariah. It shows a pattern of moving from depression and frustration to encouragement and resilience. The eight night visions of Zechariah may imply repeated patterns of frustration and resilience, possibly thanks to the continuous ministry of Zechariah for the people of Yehud during the five years of reconstructing the Second Temple.